



聖 최경환 프란치스코 한인 성당

St. Francis Choe Korean Catholic Mission

주임신부 김진모 펠릭스 (904) 909-5080

성당 (904) 573-1833

책 손 빌 성 당 St. Francis Choe Catholic Mission, 8051 Rampart Rd. Jacksonville, FL 32244

게인즈빌공동체 St. Patrick Parish, 550 NE 16th Ave. Gainesville, FL 32601



聖 최경환(崔京煥) 프란치스코(1805-1839)

책손빌 한인 성당		게인즈빌 한인 가톨릭 공동체	
주일 미사 (10 시 30 분)	매주 일요일	주일특전미사 (저녁 7 시)	매주 토요일
평일 미사 (저녁 8 시)	매주 수요일과 첫째, 셋째 금요일 매주 목요일(오전 11 시)	평일 미사 (저녁 7 시)	둘째, 넷째 금요일 (성가대 연습실에서)
성령 기도 (저녁 8 시)	매주 금요일	성령 기도 (오전 9 시 30 분)	매주 토요일
성프란치스코 기도회 (오전 11 시)	매주 목요일 미사 후	-	-
성시간	매월 첫째 주 금요일 미사 전	주일학교	매주 주일 미사 후
예비자 교리	매주 주일 저녁 7 시	예비자 교리	-
사목회의	둘째 주 주일미사 후	사목회의	첫째 주 주일미사 전
사목회	총무 이토마스 (904) 416-7437 부총무 김스테파니아 (904) 613-9245	사목회장	천창준 레오 (352) 727-0452

[전체공지]

- ※ 신부님 사목에 타시는 자동차 교체에 도움을 주실 분은 봉헌 바랍니다.
- ※ 본당 운영 및 발전을 위해 2020 년도 **교무금 약정서 작성**을 부탁드립니다 (현재 27 세대 중 23 세대 동참 중).
- ※ 미사 후 기도로 '코로나 바이러스' 확산방지 기도문을 함께 바칩니다.

[사순시기 안내]

- **십자가의 길:** 특별히 사순시기 동안 개인적으로 자주 바치시기 바랍니다 (한국은 사순시기 매주 **금요일**에 공동으로 바칩니다).
- **부활 판공성사:** 사순시기 동안에 미사 전
- ※ 사순시기에는 '대영광송과 알렐루야'를 바치지 않습니다.

[책손빌]

- 성시간 및 평일미사: 3 월 6 일 금요일 저녁 8 시에 있겠습니다.
- 사순특강: 3 월 22 일(주일) 탬파 성당 이정은 요한보스코 신부님께서 특강을 해주시고, 주임신부님은 그날 탬파성당에 특강을 하십니다.
- 고리 기도: '코로나 바이러스' 확산 방지를 위해 기도합니다.
- 성 프란치스코 기도 모임: 십자가의 길을 공동으로 바쳐주시기 바랍니다.

[게인즈빌]

- 오늘 미사후 전체식사가 친교실에서 있겠습니다.
- 다음주 미사후 사목회의가 친교실에서 있겠습니다.
- 3 월 14 일 St. Patrick's day 미사를 미국미사와 함께 합니다. 미사는 오후 5 시 30 분에 시작하며, 미사후 저녁과 이벤트가 있사오니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.

<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>

공동체	주일봉헌금	교 무 금	건축헌금	기타	총 계
게인즈빌	\$154(28 명)	\$130	-	-	\$284
책손빌	\$276(32 명)	\$610	\$100	\$708 (차량봉헌\$200)	\$1,694

www.stfccm.org

https://www.facebook.com/St.FrancisChoe

오늘의 묵상

고등학생 때 담임 선생님과 학습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.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반 등수를 보여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전에는 네가 이 친구보다 성적이 좋았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그렇지 않아. 다음에는 적어도 이 친구를 이겨야 하지 않겠니?” 선생님께서 저를 아껴 주시는 마음에 하신 말씀인 것은 알았지만, 솔직히 수긍이 되지 않았습니다. 아마도 그 친구와 면담하실 때에는 저를 거론하시면서 잘하였다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었기 때문입니다. 그날 일기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. ‘공부는 친구와의 경쟁이 아니다. 진정한 싸움은 친구들과 하는 것이 아니라, 나 자신과 하는 것이다. 공부를 자신과의 싸움으로 여겨야 친구를 시기하지 않고 응원할 수 있다.

“원수를 사랑하여라.” 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흔히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, 우리는 그 사람과 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.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‘나’와 용서하고 싶지 않은 ‘나 자신’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. “원수를 사랑하여라.”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‘나 자신’과의 싸움에서 나를 극복하게 하는 힘입니다. 우리가 이 싸움에서 나를 극복하는 힘을 얻으려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.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지닌 사랑은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집니다.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. 그분께서는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을 꾸짖으시면서도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. 그분께서는 그들의 위선적인 악과 싸우셨으며, 그 악을 몰아내시고자 두려움에 피담 흘리시는 연약하신 당신 자신과 싸우신 것입니다.

(한재호 루카 신부)

< 8. 찬미하여라 >



Bless the Lord, my soul, and bless God's ho - ly name.
찬 미 하 여 라 오 나 의 영 혼 아 -



Bless the Lord, my soul, who leads me in - to life.
찬 미 하 여 라 거 룩 한 주 이 름

사순 제 1 주일

[제 1 독서] 창세기 2,7-9;3,1-7

<사람의 창조와 원조들의 죄>

[화답송] 시편 51(50),3-4.5-6 가. 12-13.14 와 17 (◎3 가)

◎주님,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.

[제 2 독서] 로마서 5,12-19

<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렸습니다.>

[복음환호송]

◎말씀이신 그리스도님, 찬미받으소서.

○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.

◎말씀이신 그리스도님, 찬미받으소서.

[복음] 마태오 4,1-11

<예수님께서 사십 일을 단식하시고 유혹을 받으신다.>

<전례 봉사자>

공동체		해 설	제 1 독서	제 2 독서	봉 헌
이 번 주	게인즈빌 (2/29)	이호석 레오폴드	이영순 프란체스카	이명순 로사	-
	잭슨빌 (3/1)	이교순 카타리나	김현희 아네스	송재민 하상바로	조종래 미카엘 조의단 아네스
다 음 주	게인즈빌 (3/7)	고승희 엘리사벳	천희제 레아	천송희 스텔라	-
	잭슨빌 (3/8)	백경윤 아네스	조종래 미카엘	조의단 아네스	이교순 카타리나 이문자 모니카

<미 사 성 가>

공동체	입 당	봉 헌	성 체	파 건
게인즈빌	507	336	508	350
잭슨빌	127	219	151	122